

문화공공재로서 용천수의 중요성과 잠재적 가치



홍창유

부경대학교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조교수
503changyu@gmail.com



정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eschung@seoultech.ac.kr

1. 제주도 용천수의 역사와 의의

제주도는 매년 수백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제주도에는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지가 많이 있으며 관광객들의 방문도 빈번하다. 그중에서 용천수(Freshwater springs)는 방문자가 많지 않고 인지도도 낮은 관광지이지만, 교육적, 역사적 의의가 상당히 높고 방문객들에게 잠재적인 관심과 흥미를 줄 수 있는 제주도 전역에 퍼져있는 수자원이다. 또한,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에게도 제주의 용천수는 제주지역 공동체 역사와 공동체 중심 문화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근대화되었다. 마찬가지로, 다소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제주도 또한 지역개발 계획을 통해 시설과 서비스의 현대화를 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토지이용계획에서 용천수라는 존재는 중요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특히 1970년대 이후 편리한 중앙집중식 도시 상수도 급수 시스템의 개발로 인해 용천수가 갖는 수자원으로의 가치는 크게 줄어들었다(Koh, 2005; 정광중, 2016).

1970년대까지 용천수는 식수, 가정용, 농업용은 물론 가축에게 물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와 산업의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사람들은 매일 용천수에 모여 마을 단위의 사회적 교류와 정보공유를 하고, 무속 의식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하였다(박원배, 2008). 조선시대에는 필요에 따라(예: 농업, 어업의 규모), 가꾸어 수(Koh, 2005)에 따라 물 사용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사회적으로 규정했다는 기록도



그림 1. 40년대 용천수에서 빨래하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1999)

있다. 또한, 용천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은 지역 사회 원로들에 의해 공유되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 오기도 했다(Hong, 2014).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용천수가 더 이상 활용되지 않으면서, 수자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주 용천수 중 유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용천수만을 선별적으로만 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그 밖의 대다수 작은 마을에 산발적으로 분포된 용천수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보전되지 않아서 용천수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했다. 더욱이 용천수는 도시계획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도 큰 지역의 문화재이지만, 학자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시화된 삶 속에 정주하고 있는 도민들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했다. Hong(2014)에 따르면 80세 이상의 지역사회 어르신들은 아직도 용천수의 역사적, 의학적, 사회적 용도를 잘 알고 있으며, 어린 시절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노년층 여성의 경우 그림 1처럼 젊은 시절 물기는 일과 서답(세탁)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용천수에 대한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용천수에 대한 인

문·사회적 정성적 자료들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해 논문으로 발표한 국내 인문학자나 수자원 연구자는 많지 않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제주사회에서는 물 확보가 기본적인 삶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제주 용천수는 대부분 제주의 마을이나 읍내를 중심으로 입지하여 접근성이 좋아,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수자원을 가구에 공급했었지만, 현대적인 상수도 시스템 도입 후, 최근에 있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심지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용천수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유·무형 문화재 자산마저 잃어가고 있다. 제주 문화유산의 자원으로서, 용천수는 향후, 문화·교육 분야의 전통적인 제주성을 보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관리되어, 잠재적 문화공공재요소와 고유한 지역공동체 정체성을 확립하는 촉매제로의 재평가와 제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2. 용천수의 구조 및 현황

용천수는 언덕이나 계곡 밑바닥, 또는 굴착물이 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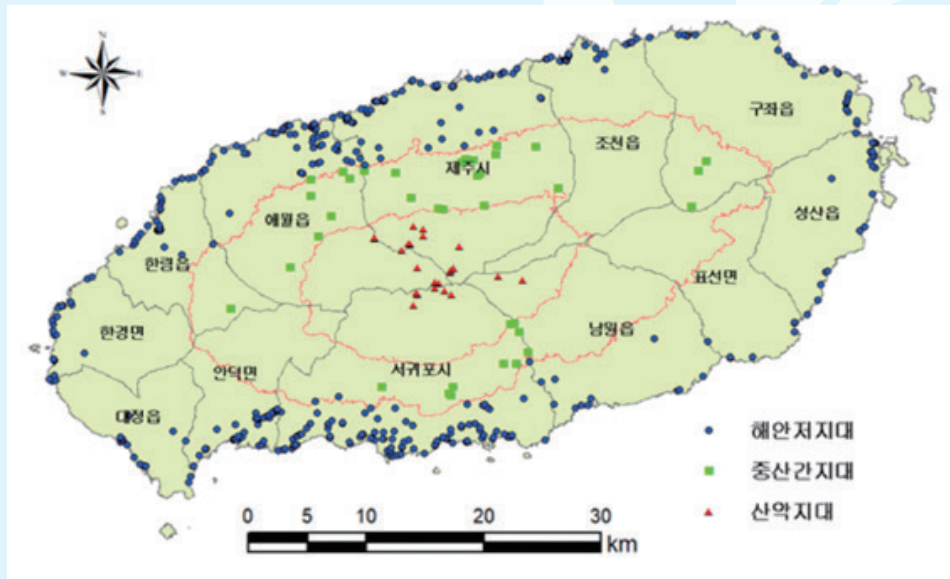


그림 2. 제주도내 용천수 분포도 (제주특별자치도, 2021)

러가는 지하수의 몸체(아래 표면 물질이 물로 포화 상태)와 교차할 때 형성되어 암석층의 틈새를 흘러 지표층으로 솟아나는 수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박원배, 2016). 다시 말하면, 용천수는 지하수 내 수량이 육지 표면으로 넘칠 정도로 대수층이 채워진 결과로 발생하는 샘이다. 용천수의 크기와 형태는 폭우가 내린 후에야 흐르는 간헐적인 침수에서부터 매일 수억 리터의 수량이 흐르는 거대한 웅덩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Koh, 2005). 이런 제주도의 용천수는 그림 2와 같이 해발 1,862.6 m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바닷가에 형성되어 있다 (박원배, 2008).

지질학 관점에서, 제주의 경우 샘은 지표면 아래에서 지표면으로 물이 흘러가는 자연 발생으로 대수층 지표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곳으로 정의된다(고기원, 2008). 샘은 지표수가 지표면(함양 영역)으로 침투해 지하수의 일부가 된 카르스트 지형의 결과일 수 있다. 지하수는 갈라진 틈과 층을 통해 흐르며 해수면 아래에서 용천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USGS, 2014). 1998-1999년 용천수 조사에서는 755곳, 2010년에는 753곳, 2013-2014년 조사에서는 661곳으로 줄

었고 2020년에는 656곳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나마 정기적인 정화와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곳은 142곳에 불과하다 (한겨레신문, 2020.11.27). 또한, 제주도내 용천수 564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48.3%인 316곳의 용천수가 거의 방치되고 있으며, 24.2%를 차지하는 185곳은 관리가 부실하고 미흡한 것으로 발표되어 용천수는 여전히 추가 관리가 필요한 수자원이다(한겨레신문, 2020.11.27.).

3. 제주용천수의 문화적 측면

역사적으로 제주 지역사회는 식수, 세탁, 목욕, 목축과 경작을 위해 용천수 및 봉천수(빗물을 받아 사용한 물)에서 물을 얻었다. 지역 사람들은 용천수를 공동체 주민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다. 지역사회는 용천수의 사용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전통적인 자치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어찌 보면 이러한 용천수를 중심으로 한 관리전통 DNA가 현재의 특별자치도의 자치문화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Izumi(1966)는 제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섬 해안선

의 지역에서 용천수 자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주사회가 용천수 물을 신성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논증했다. 물론, 물 사용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충분한 수량의 수원과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제주도의 창조 여신인 설문대¹⁾ 할망에게 기원하는 특정한 의식을 갖기도 했다. 그들은 만약 이 창조의 여신, 설문대 할망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가뭄(물 부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었다.

용천수는 아마도 섬에 있는 다른 물리적 공간적 유산들보다, 제주도만의 독특한 사고와 정서를 잘 보여 준다. 각 용천수는 주변의 물리적 구조물(돌담 건축물)과 고유의 지역 역사를 시대별로 잘 내포하고 있다. 다만, 현재 50~60대가 된 기성세대는 상수도 시스템 도입 이후 제주지역의 이런 전통문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특히 자신의 고향인 제주의 고유한 자원인 용천수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 물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다는 점도 아쉽다.

4. 제주의 공동체 문화와 용천수

제주의 주택과 마을 형성은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의 육지와 매우 다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96). 해안을 따라 위치한 바닷가 마을들은 생계를 위해 낚시 등의 활동을 했다. 게다가, 해초와 수산물을 수확한 해녀(잠녀)들은 바닷가 마을에서 눈에 띄는 핵심그룹이었다. 일반적으로 잠녀 커뮤니티는 실제로 용천수의 시설물을 중심으로 한 사고 모임이 있었다는 기록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는 잠녀들의 활동이 용천수를 중심으로 한 공동 공간과의 연결고리를 상징해주는 대목이다. 다수의 잠녀들

은 시민 및 사회적 공간인 용천수의 공동체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이웃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타인들과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박원배, 2008; 정광중, 2016; 문순덕, 2021). 또한, 용천수 시설물에서의 소통은 신입 잠녀들이 물질(잠수) 기술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했다. 전 세대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 직업 계승 과정을 통해, 잠녀문화의 전통을 지키며 장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잠녀 사회는 해양재해로 인한 위협에 항상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유대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잠녀들은 가족이나 가정 규칙보다 잠녀공동체의 규정을 더 잘 따른다고 하는데,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잠녀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미래의 어업 자원의 이익과 균형 잡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다를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잠녀들은 용천수의 수자원을 길어, 가구의 식구들이 사용할 물을 나르기도 하고 각종 가사 업무를 모두 총괄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잠녀 공동체는 해안 용천수의 자원을 사용하고, 유지할 권한도 일부 가지고 있었다. 용천수 조절과 통제에 대한 여성의 공동체적 영향은 타 지역보다 우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96).

다시 말하지만,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도 제주에서 용천수자원은 매우 중요했다. 옛날에는 지역 원로들로부터 강력한 규제로 인해 용천수 사용이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되었다. 마을 주민들과 지역 사회 원로들은 용천수를 신성한 지역으로 유지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그림 3과 같이 음용수 수집과 세탁 목적에 따라 구조물을 분리하여 설치하고, 용천수 자원의 신성함을 높이면서, 보전하고자 했다(연합뉴스,

1) 탐라지 탐수계편에서는 설만두고(雪慢頭姑)로 표기



그림 3. 용천수의 사용 용도에 따른 구조물 설치 (제주의 소리 고병연기자, 2018)

2016). 이런 점에서, 마을 공동체적 규정이 공간이용에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용천수의 특성이자 가치이다.

5. 전통교육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용천수 자원

제주도의 용천수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측면의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잠재적인 교육 및 관광 자원으로서 제주도가 농촌 및 지역 차원의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Canepa & Chafar (2020)는 물 문화 기반 레크리에이션의 중요성이 큰 만큼, 현재 수자원 계획에 있어, 물 문화 요소들을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에 제주에 있는 용천수는 지역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용천수 자원을 둘러싼 전설과 주변 경관을 통해 그들의 고유 전통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rockway (2005)는 역사적인 풍경

이 사람, 장소, 이야기(테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이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용천수 풍경이 우리에게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간과 시간적인 기록들을 제공하여 제주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알려 줄 수 있다.

용천수는 일부 지역에서 관광 자원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왔다.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주변 풍광은 방문객들이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Lucas, 1992). 일부 제주학을 공부하는 역사학자들과 도시계획가들은 제주 외곽에서 온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용천수 공간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유사하게 유네스코 보고서(1992년)에 따르면, "유산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미적, 역사적, 과학적, 사회적 중요성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가치를 지닌 자연 환경이나 문화 환경의 구성요소를 가진 장소로 정의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제주의 지역적 차원에서 풍경을 제공하는 문화재 유산을 파악하는 데 있어, 용천수는 이러한 정의를 실현하

기에 가장 적합한 개체 중 하나이다.

Canepa & Chafar (2020)가 묘사한 바와 같이, 물 문화는 수상 레포츠뿐만 아니라, 건축학적인 측면에서의 공헌할 수 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지역 용천수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것이다.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물 문화나 수생태 관찰 활동으로 새로운 관점의 체험 및 힐링 활동을 찾을 것이며, 용천수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제주의 도시화가 수자원 인프라 구축 등 지역사회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제주의 도시계획가들은 한국 육지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이용한 도시계획의 개념은 다른 지역의 도시들과 비슷한 원리를 사용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육지와 달라서 용천수와 같은 전통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제주만의 독특한 자원의 의미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제주에서 훈련된 도시 및 지역계획 전문가가 지금까지도 많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역사물 및 조경 중심 관광의 전문가인 Alumäe 등 (2003)이 주장한대로, 제주와 같은 관광-역사 지역은 용천수 등 과거 유무형 유물 보전을 지원하고,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지역 역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관광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 보존과 지역 관광은 상호 윈윈 전략을 통해 상생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사회는 도시화되고 상업화된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어 낙후된 마을을 개선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마다 다른 종류의 용천수와 역사적인 건축물들의 잔재들이 그 주변

에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제주도의 담당 기관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용천수자원을 지역사회 계획의 중요한 기본 자원으로 한층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제주의 공공기관 내 지역계획 담당 부서와 용천수자원을 연구하는 팀들은 우선 정기적으로 용천수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배경을 확인한 뒤 훼손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지역공동체 복원 과정을 위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축과정에 임해야 한다. 용천수 자원 보존은 반드시 역사, 문화, 환경적 특성, 유용성(체계적인 사용 기준)이 용천수의 보존 가치를 높게 만든다는 점을 주지하여, 막연한 스토리텔링을 넘어서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소정체성이나 장소브랜딩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물문화와 공간 요소들을 브랜딩화 할 수 있는 실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용천수 자원은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자원과 풍부한 수자원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제로 개발해야 하겠다. 향후 용천수관리 보전계획이 전통문화보전과 교육관광기회로 확장되어, 제주의 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제주 지역공동체 정책발굴에도 이바지할 수 있겠다.

제주를 찾는 방문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다. 제주가 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잠재적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제주 용천수와 같은 전통문화유산도 포함된다. 더욱이 제주도는 자치권이 보장되는 상징적인 특별자치도라는 위상으로 인해 어떤 면에서는 의사결정 유연성이 더 크다. 이러한 이유로 용천수와 관련시설이 무형 및 유형 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기원 (2008), 해안 용천수와제주민의 물이용 문화, 제주도
- 박원배 (2008), 제주 물 용천수의 효율적인 관리・보전 방안모색,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 박원배 (2016)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 제주특별자치도청 환경보전국
- 유네스코보고서 (1992) UNESCO Report, Australian Heritage Commission. Tourism at Heritage Sites, p.8, UNESCO.
- 문순덕 외 (2021). 제주도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도민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제주학연구, 55(2), 139~177.
- 정광중. (2016). 제주도 생활문화의 특성과 용천수 수변공간의 가치 탐색. 국토지리학회지, 50(3), 253-27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996), 제주전통문화, p136, 제주
- Alumäe H., Printsman A., Palang H. (2003) Cultural and Historical Values in Landscape Planning: Locals' Perception. In: Palang H., Fry G. (eds) Landscape Interfaces. Landscape series, vol 1. Springer, Dordrecht. https://doi.org/10.1007/978-94-017-0189-1_8
- Brockway, L. (2005), Documents and Landscape Preservation, American Association of Botanical Gardens and Arboretae.
- Canepa, S. & Ghafar, N. (2020). Water in Architecture, Architecture of Water.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14. 10.17265/1934-7359/2020.05.003.
- Hong, C. (2014) "Freshwater Springs Preservation in Jeju: Reinterpretation of Springs as an Ethn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ource," International Journal of Geospat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Vol. 1 : No. 2 , Article 3
- Izumi, S. (1966), Jeju Island, Tokyo, Japan
- Koh, G.W. (2005), Groundwater Occurrence on Jeju Island, Korea
- Lucas, P.H.C. (1992). Protected Landscapes, A Guide for Policy-makers and Planners, The World Conservation Union
- USGS (2014) Springs – The Water Cycle
<http://water.usgs.gov/edu/watercyclesprings.html>
- 연합뉴스. (2016, 06. 02). 길따라 멋따라 물 만난 올레길 '제주 무례'를 아시나요? <https://www.yna.co.kr/view/AKR20160603036500056>
- 한겨레 (2020.11.27.). 제주 '용천수'가 사라진다. <http://www.hani.co.kr/arti/area/jeju/971831.html>